

사도바울의 5가지 영성에 바탕한 영성훈련의 방향

강사_남종성

WMU 신약학 교수

아시안-아메리칸 영성센터 원장

Contents

01 왜 기독교 영성인가?

02 기독교 영성의 역사

03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04 사도바울의 5가지 영성

05 영성훈련의 방향

06 영성진단

07 훈련 매뉴얼 (그룹 프로젝트, 소울 프로젝트)

08 앞으로의 과제



01

왜 기독교 영성인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영성은 더욱 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포스트모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영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핀다.

01

왜 기독교 영성인가?

가치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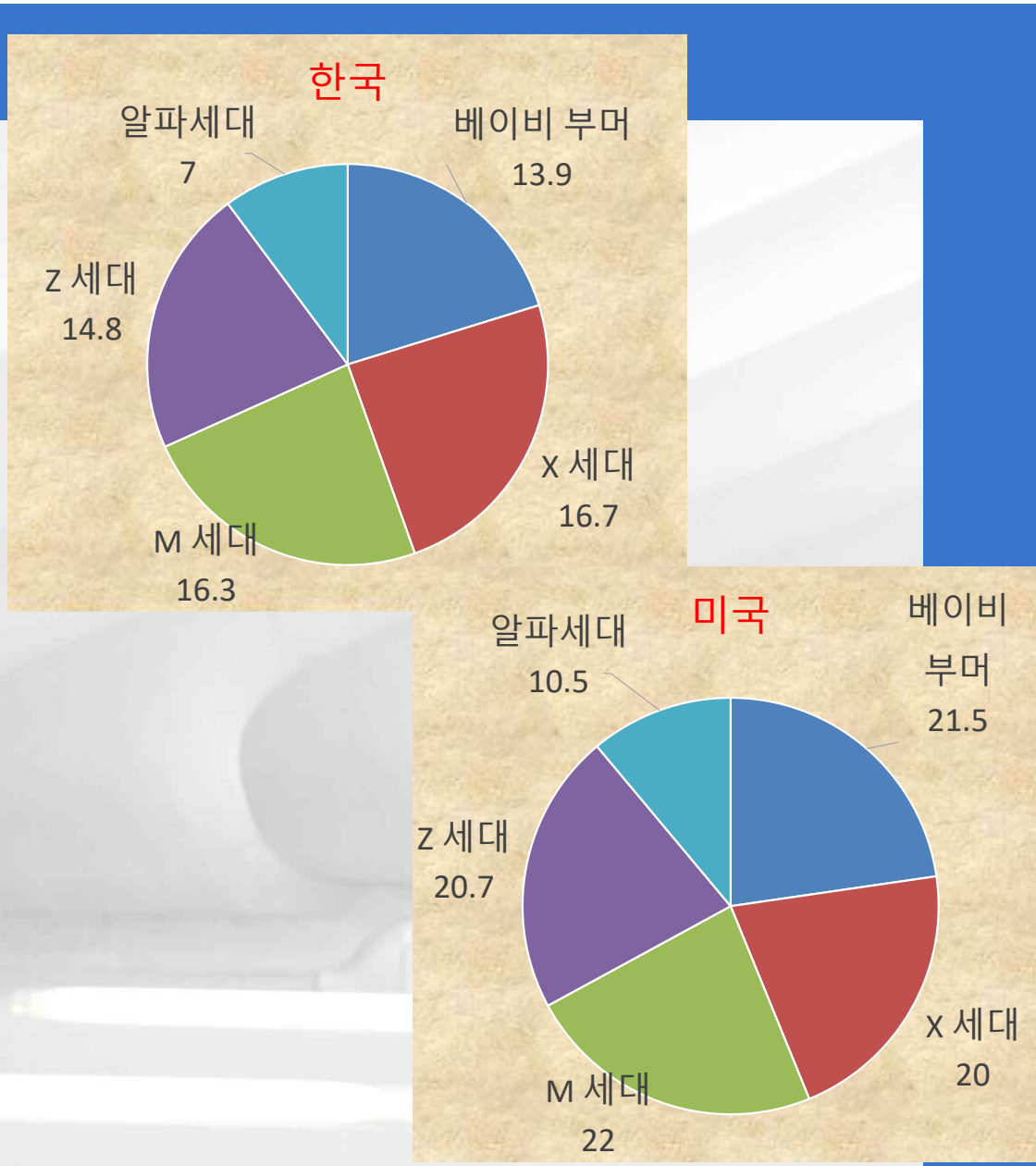
의미와 가치의 판단 기준을 외부의 권위나 규범,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두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론에서 실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중시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주의는 경험을 더 중시한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융합의 강조

현대사회는 전문성이 중요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융합과 통섭의 시대이다. 학문도 간학문적 시대가 왔다. AI 역시 융합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현대사회까지 철학, 신학, 과학은 서양이 주도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까지의 모든 업적과 성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챗봇과 가상비서, 학교교육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대	태어난 연도	인구구성 (한)	인구구성(미)
베이비 부머	1946-1964	13.9 %	21.5%
X 세대	1965-1980	16.7 %	20%
M (Y) 세대	1981-1996	16.3 %	22%
Z 세대	1997-2012	14.8 %	20.7%
알파 세대	2013 이후	7 %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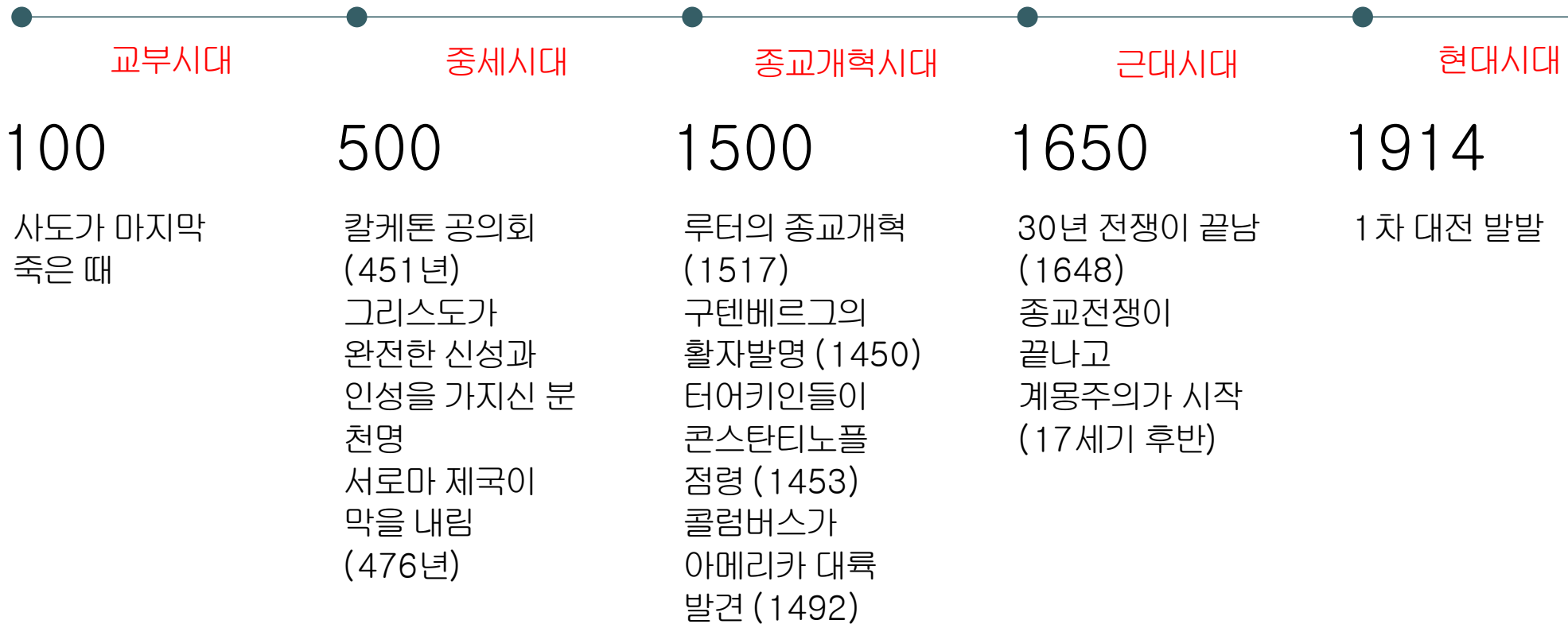


02

기독교 영성의 역사

기독교 역사속에 영성의 풍성한 유산들이 있다.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성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



교부시대 (100-500)

교부들

서방의 교부들로
터툴리안(삼위일체신학에 기여),
암브로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등이
있었고, 동방의 교부들로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학파, 성경주석과
교리의 체계화),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신조의 수호자,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신성옹호),
넛사의 그레고리우스(형이상학적
신학과 영성신학)

사막의 수도사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세속에서 물러나
침묵과 고독의 훈련을 하였다.
교리적인 개념의 가르침이 아니고
마음의 청결과 거룩성을 강조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다.

교부시대의 영성

교부들은 성경과 삶을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고 순교적
신앙을 소유했다. 기독교적 변증에
힘을 쏟았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나가는 것(실천)과 들어오는
것(기도)의 균형을 이루며 살았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훈련을 했다. 영적
지도자를 영적 아버지라 불렀다
(러시아 정교회의 스타레츠)



중세시대 (500-1500)

중세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자이다. 2가지 계시의 원천을 가진다고 믿는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다. 기록되지 않는 전통은 기록된 성경의 불분명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교리와 전통이 강조되었다. 교권이 강화되고 평신도들은 성경문맹상태에 있었다. 미사와 성례전은 중세 카톨릭 교회 영성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성만찬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스콜라 신학

중세 유럽의 철학적 신학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수도원 운동의 부작용이 스콜라 신학이 등장하는 배경을 제공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등이 큰영향을 미쳤다. 논리적 분석과 변증법을 강조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대표적이다.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파리,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스콜라 신학의 영향으로 신학과 영성이 분리되었다. 영성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신학 특히 교의학은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탁발 수도회

폐쇄된 수도원 공동체에서 12세기 이후에 온누리를 수도원으로 생각하고 세속으로 뛰어든 공동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공동체가 프란시스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이다. 청빈생활의 서약, 구걸로 생계유지, 전도하는 수도단 등이 특징이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다. 철학, 법학, 인문학 등에 있어서 당시 최고의 지적 수준을 보였다. 스콜라 신학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종교개혁시대 (1500-1650)

르네상스

르네상스 운동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4세기와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나 15세기말과 16세기 초에 유럽 대부분으로 퍼져나갔다. 르네상스의 슬로건은 “ad fontes” (원천으로) 였다. 중세암흑에서 신약으로 돌아가자는 당위성을 주었다. 중세말 교회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스콜라 철학을 비판했다. 어거스틴의 책들도 스콜라 학자가 해석해준대로그 아닌 원천으로 읽자고 했다. 성경도 원문으로 읽을 것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성경 출간이다.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적인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조했다면, 츠빙글리는 그리스도를 따름 (discipleship)을,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강조했다. 루터는 전통적인 영성훈련들 즉 피정, 순례, 십자가 성호긋기, 기도서 사용들을 수용한 반면 츠빙글리는 성경이 명하고 있지 않은 일체의 모든 관례를 교회에서 추방했다. 오르간 사용도 금했다. 칼빈은 중간 입장을 취했다.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개혁가들의 영성과는 달리 루터주의나 칼빈주의와 같은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신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로 귀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독일 루터파 서클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개인적인 중생과 성화 그리고 체험을 강조했다. 사회적 봉사도 강조했다. 수덕적인 삶과 신비적인 삶을 조화롭게 연결시켰다. 스페너, 프랑케, 진센돌프, 웨슬리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근대시대 (1650-1914)

계몽주의

17세기 종교전쟁은 사회의 분열과 경제불황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지치고 종교논쟁에 신물이 났다. 광신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종교자체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계몽주의가 등장할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종교의 권위에서 탈피하기 원했고 모든 권위의 근거를 '이성'에 두었다. 계몽주의는 17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8세기에 만개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역사비평

17세기와 18세기에 성경의 비평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성경도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교회 교리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성에 부합한 진리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중요한 흐름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부성, 형제애, 인간영혼의 영원한 가치, 현재적 윤리 강조. 예수님을 도덕적 삶의 표본으로 보았다. 현대적 사상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려 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의 끝없는 진보, 인간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 기독교라는 종교와 윤리관을 통해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슐라이에르마허, 리츨, 하르낙, 헤르만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 낙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다.

현대 (1914-현재)

근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하는 전투적인 신학형태이다. 축자영감, 성경무오, 전천년설, 젊은 지구 창조설 등을 양보없이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주의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과 친교나 협력을 거부했다. 빌리 그레함 부흥운동도 거부했다. 자신들이 참된 성경적 교회라고 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근본주의 지도자들의 고집과 분리주의에 실증을 느낀 보수적인 교회들인 전미복음주의협회를 결성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주의 운동이 현대적 복음주의로 발전했다.

신정통주의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칼 바르트라는 한 청년이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학창시절의 교수들이 빌헬름 2세의 전쟁정책에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봉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를 수 없었다. 바르트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체계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로마서 주석은 성경해석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말씀을 신학'을 회복하기 원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본주의와 폐쇄적 근본주의 사이에서 개신교 신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다양성 및 통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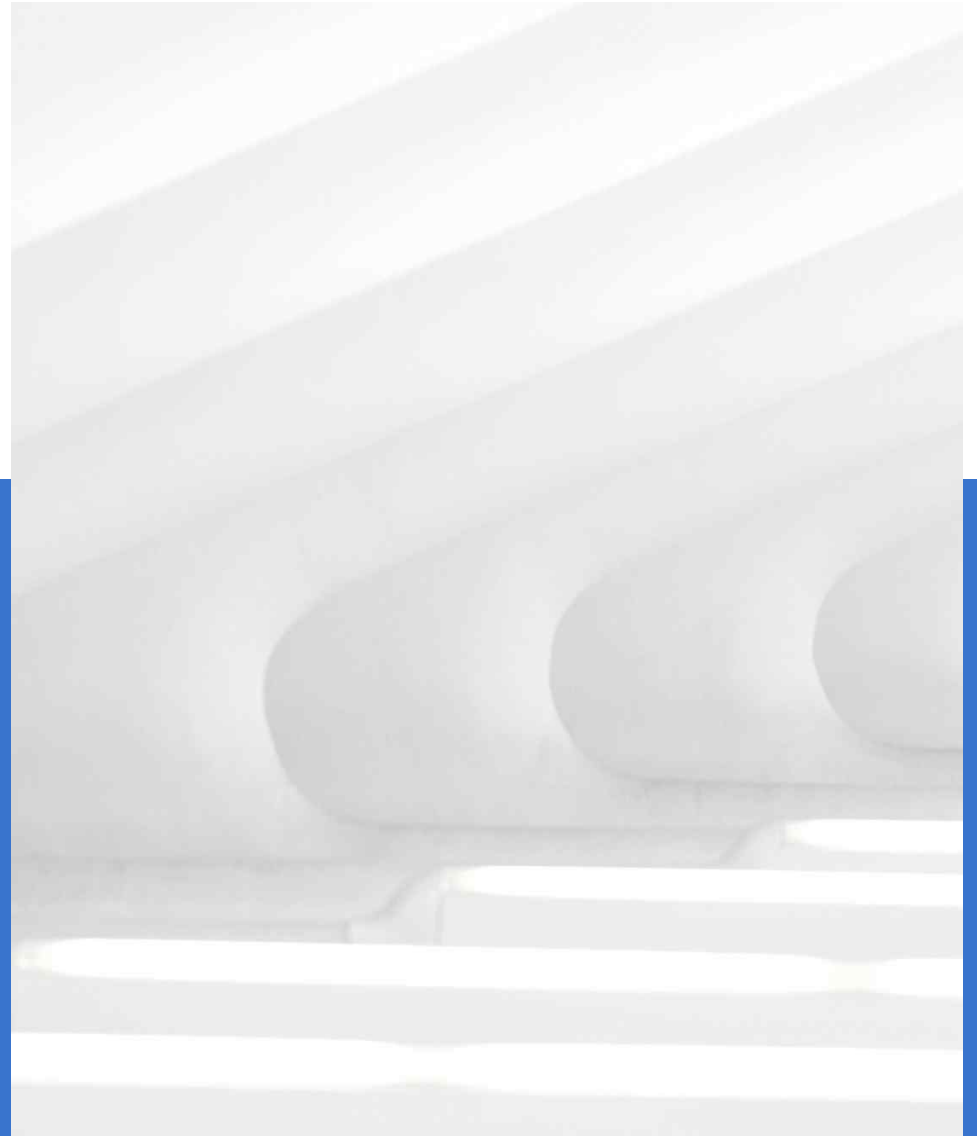
20세기에 오면서 오순절 운동부터 해방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되었다. 동시에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 다양한 기독교 전통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도 일어났다. 또한 현대 신비주의와 영성훈련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토머스 머튼과 같은 인물이 현대 영성의 대표적 인물이다.



03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14-15)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14-15)



프누마 (*pneuma*)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야훼의 영” (ruach of Yahweh)이다. 이
‘루아흐’가 헬라어로 ‘프누마’이다.

두 종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 *pneumatikos*

육에 속한 사람 = *sarkikos*

‘*pneumatikos*’라는 말은 창조자의
권능(power)이나 입김 (breath)의 지배,
곧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sarkikos*’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벗어나
사는 사람을 말한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구분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가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구분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성이란



‘성령안에서’ (*en pneumatì*) ‘참 사람’ (*Imago Dei*)의
길을 걷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통합적 인간상

영성은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몸, 사회, 생태계, 세속적인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일상의 삶을 중시

영성은 삶의 일부분이나 경건한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삶 전체와 연관이 있다.

역사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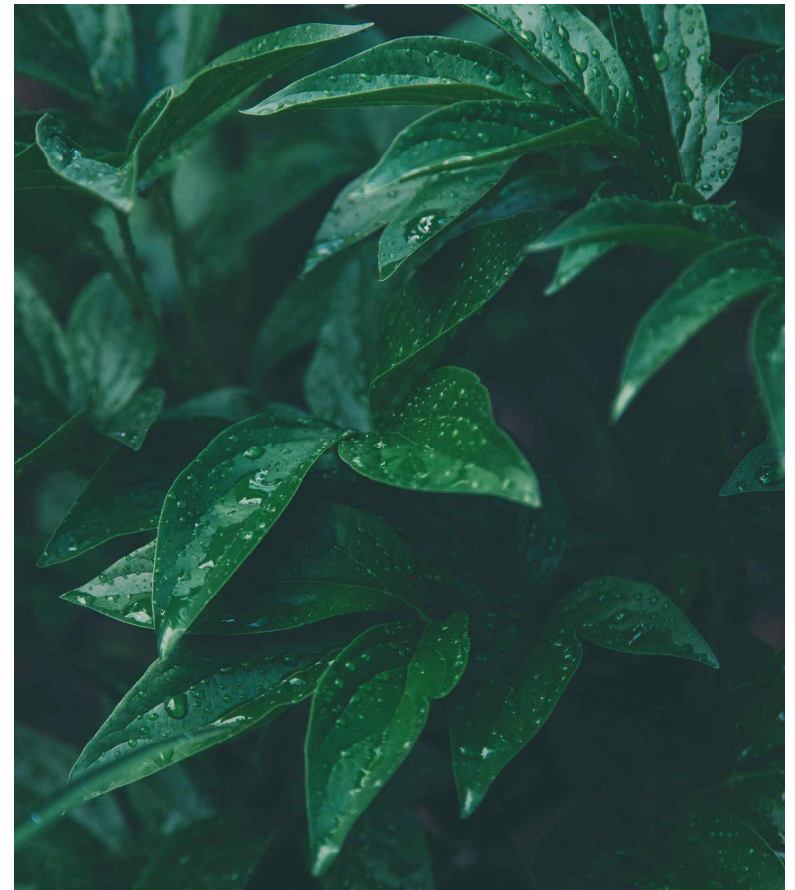
영성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다.

자기 초월적 삶에 응답

영성은 자신의 삶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 초월적 차원에 응답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기 초월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AI 시대에 응답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이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영성 훈련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04

사도바울의 5가지 영성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 21:23)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 1:16)

1

만남의 영성

바울이 바울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매우 강렬하여
바울의 사상,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

- ❑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신 21:23).
-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빛이 그의 마음에 계시로
임함(갈 1:16).
- ❑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갈 3:13)
다메섹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
(딤후 1:15)임을 깨달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① 만남의 영성

바울이 바울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매우 강렬하여 바울의 사상,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

- ❑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신 21:23).
-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빛이 그의 마음에 계시로 임함(갈 1:16).
- ❑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갈 3:13)
다메섹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 (딤후 1:15)임을 깨달음.

①

만남의 영성

바울이 바울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매우 강렬하여 바울의 사상,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

- ❑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신 21:23).
-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빛이 그의 마음에 계시로 임함(갈 1:16).
- ❑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갈 3:13)
다메섹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 (딤후 1:15)임을 깨달음.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

- ❑ “화해” = *katalagē*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
- ❑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달아야 함
- ❑ 찾아와 화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롬 5:11).
- ❑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고 ‘화해’는 관계적 변화를 말한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1)

1

만남의 영성

바울이 바울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매우 강렬하여
바울의 사상,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

-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신 21:23).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빛이 그의 마음에 계시로 임함 (갈 1:16).
- 주님을 만난 후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 (갈 3:13)
다메섹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 (딤후 1:15)임을 깨달음.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

- “화해” = *katalagē*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
-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달아야 함
- 찾아와 화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롬 5:11).
-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고 ‘화해’는 관계적 변화를 말한다.

“이방의 빛이 되게하리니” (사 42:6f)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사 49:6)

①

만남의 영성

- 1)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
- 2)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
- 3) 새창조의 경험
- 4) 소명을 받음

새창조의 경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 4:6)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소명을 받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 9:1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 4:5)

사 42:6f. 와 49:6의 “야훼의 종”의 소명을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en Christō*)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kainē ktisis*)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2

거함의 영성

‘거함의 영성’은 ‘그리스도안에 있음’ (*en Christō*)의 영성을 말한다. 바울이 사용한 *en Christō* 라는 표현은 바울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뿐만 아니라 바울 영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엔 크리스토’ 표현의 독특성

‘그리스도’ (*Christos*): 신약성서-531회, 바울서신-383회
en + Christō = 164회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전치사 *en* 은 ‘연합’, ‘교제’, ‘연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en Christō*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며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후 5:17).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이다.

②

거함의 영성

‘거함의 영성’은 ‘그리스도안에 있음’ (*en Christō*)의 영성을 말한다. 바울이 사용한 *en Christō* 라는 표현은 바울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뿐만 아니라 바울 영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엔 크리스토’ 표현의 독특성

‘그리스도’ (*Christos*): 신약성서-531회, 바울서신-383회
en + Christō = 164회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전치사 *en* 은 ‘연합,’ ‘교제,’ ‘연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en Christō*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며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후 5:17).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이다.

- ❑ 죄와 죽음의 법 →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존재
- ❑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
- ❑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감
- ❑ 참 자유를 얻음
- ❑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실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며,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2

거함의 영성

‘거함의 영성’은 ‘그리스도안에 있음’ (*en Christō*)의 영성을 말한다. 바울이 사용한 *en Christō* 라는 표현은 바울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뿐만 아니라 바울 영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새로운 통치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에 거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것에서 해방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롬 8:1-2)

②

거함의 영성

‘거함의 영성’은 ‘그리스도안에 있음’ (*en Christō*)의 영성을 말한다. 바울이 사용한 *en Christō* 라는 표현은 바울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뿐만 아니라 바울 영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새로운 통치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에 거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것에서 해방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롬 8:1-2)

성령 안 (*en pneumatī*)에서의 삶

- ❑ 성령안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속에서 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의 변화를 의미한다.
- ❑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 ❑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
- ❑ 그리스도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현재와 미래 사이에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3

답음의 영성

답음의 영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롬 8:29).
-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갈 4:19).
- 그날이 오면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완벽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고전 15:4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 4:19)

③

답음의 영성

답음의 영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롬 8:29).
-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갈 4:19).
- 그날이 오면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완벽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고전 15: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9)

③

답음의 영성

답음의 영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 ❑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롬 8:29).
- ❑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갈 4:19).
- ❑ 그날이 오면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완벽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고전 15:49).

3

닭음의 영성

닭음의 영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롬 8:29).
-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갈 4:19).
- 그날이 오면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완벽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고전 15:49).

인간의 창조

-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하셨다.
- 다른 피조물의 창조는 ‘3인칭 사역형’(“Let there be...”)이 사용되었지만, 인간의 창조는 ‘1인칭 복수 사역형’(“Let us...”)이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Let us make man)라고 말씀하고 있다.
- 다른 피조물은 선언의 형태이지만 인간의 창조만은 “의논의 형태”인 “1인칭 복수 사역형태”가 쓰인 것이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히브리어 ‘빠라’(create)라는 동사가 창1장에 5번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를 밝히고 있는 창1:26-27에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③ 닮음의 영성

닮음의 영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 1:26)

	형상	모양
히브리어	<i>chelem</i>	<i>demut</i>
헬라어	<i>eikon</i>	<i>homoiosis</i>
라틴어	<i>imago</i>	<i>similitudo</i>
영어	image	likeness
신학적 의미	선물 (gift)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과제 (task) 더욱 더 닮아가야 하는 존재
문법적 정의	“-이다” (서술형)	“-이어야 한다” (명령형)

삶의 최종 목표

-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한다.
- ❑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실 것이다 (빌 3:20-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tō sōmati tēs doksēs*)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20-21).

닮음의 영성

닮음의 영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 1:26)

	형상	모양
히브리어	<i>chelem</i>	<i>demut</i>
헬라어	<i>eikon</i>	<i>homoiosis</i>
라틴어	<i>imago</i>	<i>similitudo</i>
영어	image	likeness
신학적 의미	선물 (gift)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과제 (task) 더욱 더 닮아가야 하는 존재
문법적 정의	“-이다” (서술형)	“-이어야 한다” (명령형)

삶의 최종 목표

-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한다.
- ❑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실 것이다 (빌 3:20-21)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욥 2:28-29)

4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희망의 종말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Already and not yet

- ❑ 묵시문학적 종말론: 이 세대와 올 세대를 구분 - 이 세대는 악이 지배하고, 올 세대는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 ❑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타난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식했다. 구약의 선지서나 묵시문학 그리고 랍비문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Already and not yet의 새로운 종말론적 구조를 구축했다.

새시대 속에서 살아감

- ❑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욥 2:28-29).
- ❑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영은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겔 11:19-20).
- ❑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갈 3:13-14).
- ❑ 성령은 미래의 소망을 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롬 15:13) 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희망의 종말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Already and not yet

- ❑ 묵시문학적 종말론: 이 세대와 올 세대를 구분 - 이 세대는 악이 지배하고, 올 세대는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 ❑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타난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식했다. 구약의 선지서나 묵시문학 그리고 랍비문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Already and not yet의 새로운 종말론적 구조를 구축했다.

새시대 속에서 살아감

- ❑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골 2:28-29).
- ❑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영은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겔 11:19-20).
- ❑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갈 3:13-14).
- ❑ 성령은 미래의 소망을 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롬 15:13)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 3:13-14)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희망의 종말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Already and not yet

- ❑ 묵시문학적 종말론: 이 세대와 올 세대를 구분 - 이 세대는 악이 지배하고, 올 세대는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 ❑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타난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식했다. 구약의 선지서나 묵시문학 그리고 랍비문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Already and not yet의 새로운 종말론적 구조를 구축했다.

새시대 속에서 살아감

- ❑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골 2:28-29).
- ❑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영은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겔 11:19-20).
- ❑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갈 3:13-14).
- ❑ 성령은 미래의 소망을 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롬 15:13) 되기를 기도한다.

“보증(arrabōn)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후 1:22b)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3)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sphragizō)을 받았으니” (엡 1:13)

④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희망의 종말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살아감

- ❑ 성령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보증 (*arrabōn*)이 된다. (고후 1:22 b) – 신자가 성령안에서 지금 경험하는 생명은 죽음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을 보증한다는 것을 강조.
- ❑ 성령의 인치심 (*sphragizō*)을 받았다 (엡 1:13). – 소유의 표시로 도장을 찍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 8:21)

④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희망의 종말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살아감

- ❑ 성령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보증 (*arrabōn*) 이 된다.
(고후 1:22 b) - 신자가 성령안에서 지금 경험하는 생명은
죽음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을 보증한다는 것을 강조.
- ❑ 성령의 인치심 (*sphragizō*) 을 받았다 (엡 1:13). - 소유의
표시로 도장을 찍음

만물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감

- ❑ 만물도 새로워 질 것이다 (롬 8:21)

4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이다.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희망의 종말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살아감

- 성령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보증 (*arrabōn*) 이 된다. (고후 1:22 b) - 신자가 성령안에서 지금 경험하는 생명은 죽음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을 보증한다는 것을 강조.
- 성령의 인치심 (*sphragizō*) 을 받았다 (엡 1:13). - 소유의 표시로 도장을 찍음

만물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감

- 만물도 새로워 질 것이다 (롬 8:21)

종말론적인 삶

종말의 빛 아래서 파악된 인간은 최후의 결단과 선택앞에 선 인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인간이다.

5

세움의 영성

세움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 (*soma Christou*)의 영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메타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레코-로마 세계에서의 몸 메타포

- ❑ 주전 5세기 로마에서 평민들의 반란 – 지배층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한다.
- ❑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의 몸의 메타포 – “몸의 각 부분들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들, 즉 손, 입, 이들이 더 이상 음식을 배에 공급하지 않기로 공모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결국 몸은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 빈사상태가 되었다.”

바울이 사용한 메타포 (고전 12:12)

- (A) 몸은 하나인데
 - (B) 많은 지체가 있고
 - (B') 몸의 지체가 많으나
 - (A') 한 몸임과 같이
 - (C)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
- ❑ 하나 속에 다양함 (A) (B), 다양함 속의 하나 (B') (A')의 교차대구 –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 ❑ 가장 강조되고 있는 문장은 (C)이다.
-
- ❖ 유기체적 관계성
 - ❖ 지체의 독특성
 - ❖ 상호 존중성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 10:23-24)

5

세움의 영성

세움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 (soma Christou)의 영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메타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추구한 세움의 영성

-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방법이며 성령의 전이다.
- ❑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 ❑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적 과제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 ❑ 세움의 영성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고전 10:23-24).
- ❑ ‘서로’ (allelon)의 윤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방식이다.
- ❑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간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 또는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 ❑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은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01

만남의 영성

- ❑ Encounter
- ❑ 십자가
- ❑ 관계의 회복

02

거함의 영성

- ❑ *En Christō*
- ❑ 그리스도와의 연합
- ❑ 새로운 통치

03

답음의 영성

- ❑ *Imago Dei*
- ❑ 창세전 하나님 계획
- ❑ 그리스도의 형상

04

소망의 영성

- ❑ Already and not yet
- ❑ 보증(*arrabōn*)과 인치심(*sphargizō*)
- ❑ 순례자의 영성

05

세움의 영성

- ❑ *Soma Christou*
- ❑ 다양함 속에 하나
- ❑ 사랑

05

영성 훈련의 방향



만남의 영성

만남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현장들

01.

자신의 위치 파악

1) 자차원 지향적 인간 2) 현실
지향적 인간 3) 고차원 지향적
인간

02.

예배

예배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03.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04.

복음에 대한 성경공부

비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한
성경공부를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05.

광야 체험을 통한 그리스도
만나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주신 은혜를 나눈다.

06.

인카운터 수련회

2박 3일 정도 수영관에 가서
인카운터 수련회를 실시한다.

거함의 영성

거함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현장들

01.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다.

02.

영적전쟁과 기도훈련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알고,
교회 전통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수행했던 기도의 방식들을
채택하여 훈련한다.

03.

성찬식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한다.

04.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한다.
물질, 건강, 전문성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05.

성령론에 대한 공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다.

06.

안식의 훈련

성경적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한다.

렉시오 디비나

- 1) 렉시오 (Lectio) – 읽기
- 2) 메디타시오 (Meditatio) – 묵상하기
- 3) 오라시오 (Oratio) – 기도하기
- 4) 컨템플라시오 (Contemplatio) – 그리스도안에 머물기

거룩한 성경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다.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알고,
교회 전통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수행했던 기도의 방식들을
채택하여 훈련한다.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한다.

04.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한다.
물질, 건강, 전문성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05.

성령론에 대한 공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다.

06.

안식의 훈련

성경적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한다.

삶의 영성

삶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현장들

01.

그리스도 형상 회복 과정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02.

학습의 훈련

평생학습자로서 배움의 길을
추구하게 한다.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동시에 영성 고전
등을 많이 읽는다.

03.

인문학 훈련

교양이라는 것은 자기 발견을
위해 자기를 초월하여 밖의
세계와 소통하고 비판하며 그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이다.

04.

그리스도의 형상 배우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운다.

05.

일과 영성

일터가 나의 부르심의 장소인
것을 알고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된다.

06.

혀와 지갑의 훈련

언어생활과 물질의 생활을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소망의 영성

소망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현장들

01.

종말론적 신앙과 인식론

Already and not yet의
종말론적 긴장을 이해하고
종말에 대한 인식론의 변화를
가져온다. 순례자의 영성을
이해한다.

02.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의, 평강, 희락).
주기도문적 삶을 실천한다.

03.

성령이 주시는 확신

성령이 주신 보증 (아라본) 과
인치심 (스프라기조) 의 확신을
갖는다.

04.

시대적 사명을 구체화

AI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인의
사명을 구체화한다.

05.

죽음의 영성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과
동시에, 종말의 빛 아래서
자신을 파악하고 최후의 결단과
선택을 한다.

06.

창조세계를 돌봄

마지막때 만물도 회복될 것이다.
생태신학등에 관심을 갖고
창조세계를 돌본다.

세움의 영성

세움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현장들

01.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

02.

소그룹 영성

성경공부하는 소그룹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소그룹을
세운다. 성령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

03.

재능과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긴다.

04.

디지털 네트워킹

디지털 기기를 통한 기독교
공동체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05.

공감과 돌봄의 영성

소외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공감과 돌봄을 제공한다.

06.

섬김과 환대

환대는 낯선 사람을 나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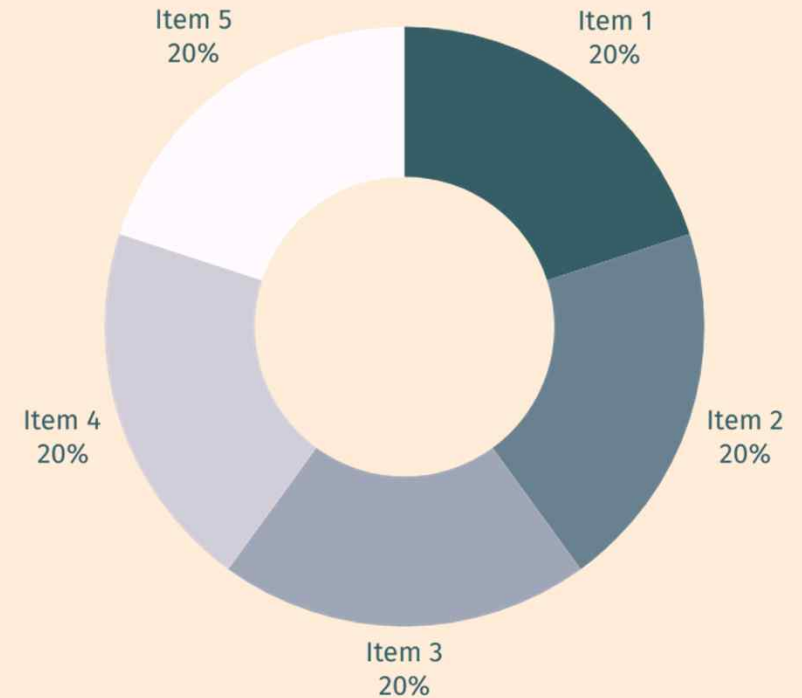
06

영성진단

바울의 5가지 영성을 항목별로 진단하여 무엇이 부족하지를 파악하여 그룹 프로젝트와 소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만남의 영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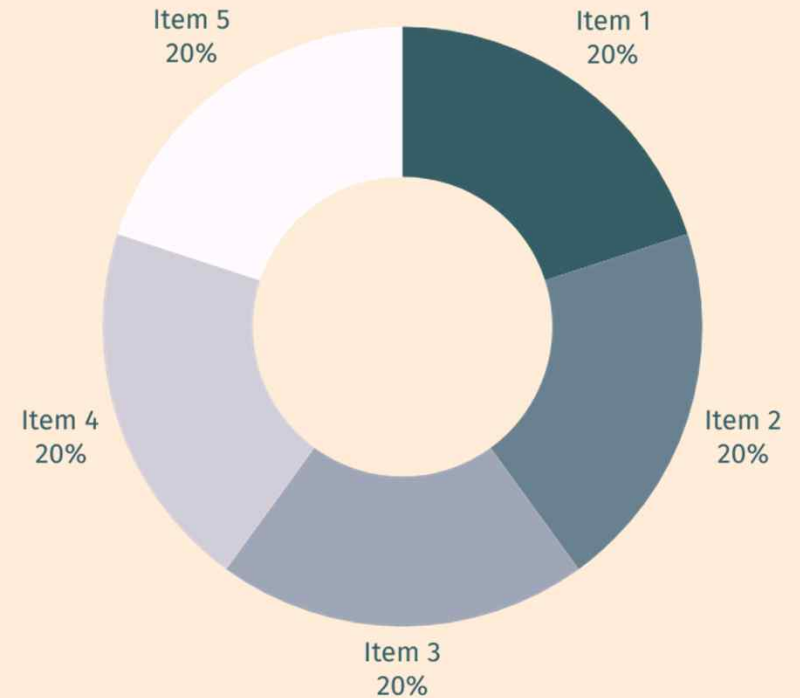
- 1)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전 생애의 전환점을 가지고 왔다.
- 2) 나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 3) 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 4) 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 5)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다.
- 6)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 7)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 8)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 9) 나는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계시의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 10)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다.

거함의 영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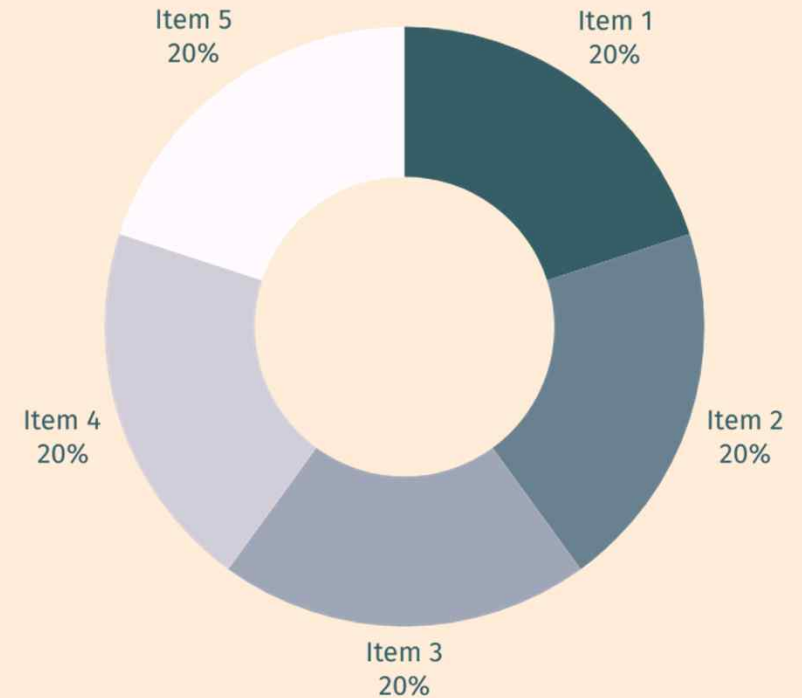
- 1)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2) 나는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한다.
- 3) 내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복종한다.
- 4) 나는 물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경험했다.
- 5)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있다.
- 6) 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 7)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다.
- 8) 나는 나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다.
- 9) 나는 예수님을 믿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 10)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로 승리하고 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다.

삶의 영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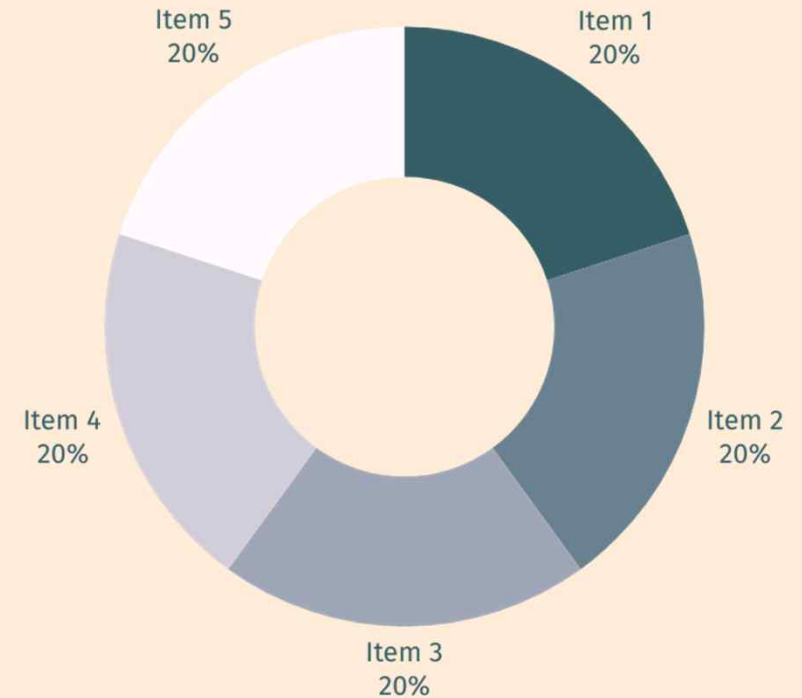
- 1)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2) 나는 평생 학습자로서 평생 배움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 3) 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 4) 나의 언어속에는 감사와 칭찬과 배려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훨씬 많다.
- 5) 나는 자기 발전을 위해 자기를 초월하여 밖의 세계와 소통하고 비판하며 그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 6)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기적인 멘토링이나 코칭, 또는 영적지도를 받고 있다.
- 7) 나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나 소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다.
- 8) 나는 미래에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며 하루 하루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 9) 나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자훈련을 이끌고 있다.
- 10)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위해 창세전 부터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는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다.

소망의 영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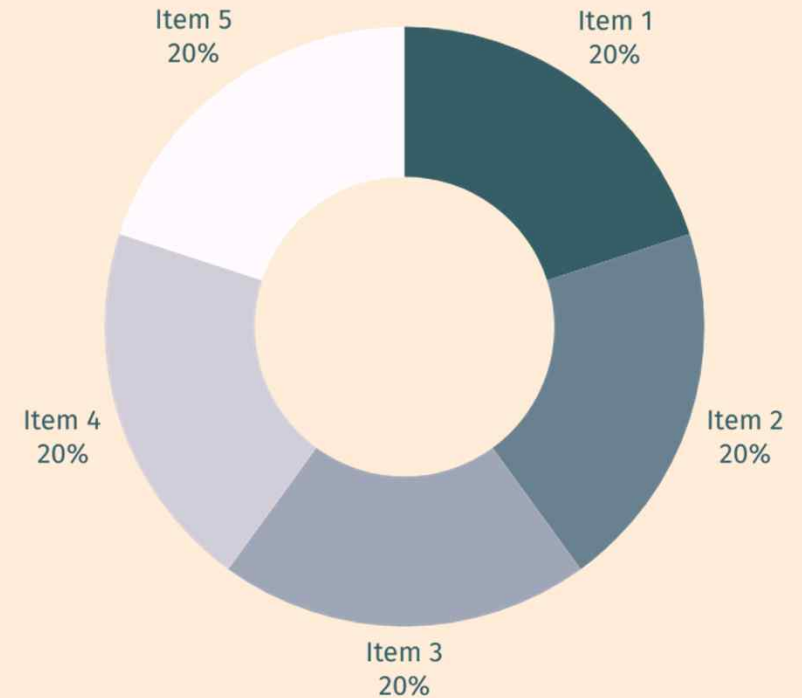
- 1)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있다.
- 2) 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 3)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있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다.
- 4) 나는 성령님의 보증과 인치심 (소유를 의미하는 도장을 찍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5) 나는 디지털 기술을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 6) 나는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죽음의 빛 아래서 나를 파악하고 최후의 결단과 선택을 하고 있다.
- 7) 나는 자연과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으로든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 8) 나는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를 알고 새언약의 법에 따라 살고 있다.
- 9)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 10)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already and not yet) 라는 종말론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다.

세움의 영성 진단

- 1) 나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 2) 나는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 3)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 4) 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기독교 공동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 5) 나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공감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6) 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
- 7) 나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 8) 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 9) 나는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 10)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다.

07

훈련 매뉴얼



만남의 영성 그룹 프로젝트

영성진단 후에 만남의 영성 부분이
부족하면 8주간 줌을 통해서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 1주 자신의 현주소 파악
- 2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1)
- 3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2)
- 4주 십자가의 본질 (1)
- 5주 십자가의 본질 (2)
- 6주 복음전도
- 7주 광야의 영성 (1)
- 8주 광야의 영성 (2)

차원	특성	Key word	성경적은유	Form
1차원	선	절망	애굽에서 노예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No form
2차원	면	경쟁	감독들	Inform
3차원	입체	소유	지배자들	Conform
4차원	시간	고난	광야	Reform
5차원	에너지	섬김	만나 (일용할 양식 = <i>epi+ousion</i>)	Transform
6차원	666	사탄	붉은 용	흑암
7차원	1000	부활	보좌 우편	생명
8차원	888	천국	새예루살렘	영생

만남의 영성 그룹 프로젝트

영성진단 후에 만남의 영성 부분이
부족하면 8주간 줌을 통해서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 1주 자신의 현주소 파악
- 2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1)
- 3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2)
- 4주 십자가의 본질 (1)
- 5주 십자가의 본질 (2)
- 6주 복음전도
- 7주 광야의 영성 (1)
- 8주 광야의 영성 (2)

만남의 영성 소울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8주 동안
영성코칭 인도자와 함께 소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요한복음 읽기

요한복음 전체를 읽되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의 연합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는다.

책 읽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정독한다.

소명 찾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

고백의 훈련

간증문을 적어 그룹
프로젝트 수업시간에
개인신앙고백을 한다.

닭음의 영성 그룹 프로젝트

영성진단 후에 닭음의 영성 부분이
부족하면 8주간 줌을 통해서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 1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 2주 인간의 창조
- 3주 그리스도의 형상 배우기
- 4주 AI 시대의 학습법
- 5주 일과 영성 (1)
- 6주 일과 영성 (2)
- 7주 혀와 지갑 훈련 (1)
- 8주 혀와 지갑 훈련 (2)

단계	과정	내용
1	성경	바른 성경읽기
2	신조	신앙의 뼈대
3	교육화 (Education)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낸다.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 낸다.
4	학습화 (Schooling)	어떤 부분을 전문화 시킨다.
5	신학화	철학화 내지는 사상화한다.
6	믿음화	Big Story 에 참여하기
7	생활화	‘영성’은 신앙과 일상이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다.

하는 과정

영성진단 후에 닮음의 영성 부분이
부족하면 8주간 줌을 통해서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6주

일과 영성 (2)

7주

혀와 지갑 훈련 (1)

8주

혀와 지갑 훈련 (2)

닭음의 영성 소울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8주 동안
영성코칭 인도자와 함께 소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마가복음 읽기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정독한다.

책 읽기

존 스토티의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자질
8가지』라는 책을
정독한다.

영성일기 쓰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영성일기를
쓴다.

앞으로의 과제

영성진단 질문의 타당도 검사 및
규준 설정

영성진단 질문의 통계화 및 분석

그룹 프로젝트 및
소울 프로젝트 개발

영성 코칭 자격증 과정

AI 시대의 영성 훈련



08



Thank
You